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6>



전쟁터에서의 살인도 악업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슬픈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의 위협 아래 있다. 사실상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현대의 국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직 간접적으로 이웃 나라에도 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짐중하다. 인명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은 막대하다. 아무리 명분이 온전할지라도 전쟁은 슬픈 인명을 빼앗아간다. 따라서 어떠한 전쟁도 미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형언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끼쳐며 승리하더라도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패배한 자는 원한을 품고 복수할 기회를 찾는다.

정치·경제적 이유로 젊은이 희생해선 안돼 적군 죽이는 행위, 본질적으로 살인과 같아

인을 보내야 하는가라고 항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리온 부대는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그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전쟁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하여 평화활동을 주로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 건물 등을 복구해 주며 주민들을 위한 의료활동도 한다고 한다. 한국군은 저항세력으로 부터 테러 등 공격을 받을 때 방어적인 작전을 위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군이 이라크에 보내진다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트집 잡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불이익을 가져올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국군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또는 경제적인 이유 즉, 이라크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폭탄이 수시로 터지고 있는 분쟁 지역에 젊은이를 보낸다는 것도 옳지 않다. 정치적인 고려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젊은 군인들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전쟁터에 우리 군인을 보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음의 <전투경(戰鬪活經)>은 전쟁터일 지라도 살생을 금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사 마을의 촌장이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공손히 문안드렸다. 그리고 나서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오래 전에 어떤 늙고 딱 있는 전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만일 전사라면 몸에 갑옷을 끼고 손에는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장사(將士)가 되어 선봉에 서서, 수단과 방편을 다해 원수인 적을 잘 무찌르면 그는 이 행위가 인연이 되어 전향복천(轉降伏天)에 태어난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부처님의 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묻자, 부처님께서 두 번 세 번 그만두게 하였는데도 오히려 질문을 그만두지 않았다.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촌장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물을 것이니 그대는 마음대로 대답하라. 촌장이여,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만일 전사가 몸에 갑옷을 입고 전사의 선봉이 되어, 수단과 방편을 다하여 원수인 적을 잘 무찌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살생(殺)하려 하는 마음을 먼저 일으켜, 저들을 결박하고 칼을 썩혀 찢어 죽이려는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싸움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악을 짓게 되나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악한 인연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끊난 뒤에 전향복천과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투합경(戰鬪活經)은 전쟁터일 지라도 살생을 금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쟁 중에 벌어지는 살생은 일상적인 살인과 다르게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살인은 사회 질서 및 인간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다스려진다. 그러나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은 영웅적인 행위로 칭송된다. 적을 많이 죽이면 죽일 수록 더 큰 훈장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전쟁터에서의 살인도 일반적인 살인과 마찬가지로 칭송 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보면 지난 역사에서 나폴레옹은 프랑스인에게 위대한 장군으로 칭송되었지만 나폴레옹 군대의 침략을 받은 나라의 국민들은 그를 살인마라고 저주했을 것이다. 이렇듯 상대적인 것이다. 개인간의 싸움이 가장 확대된 것이 국가 간의 전쟁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살생이라는 악업이 지나지 않는다고 부다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범추 스님은 신·해·행·증의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라고 말한다.

보시할 수 있는 모든것에 기꺼이 달려 가라



범추스님

(청주 풍주사)

행(行)을 할 줄 알아야 부처지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이 땅에 오신 뜻은 바로 자비와 보시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자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믿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행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믿어 있다 해도 이는 것이 아니지요. 뿌리없이 꽃이 필 수 없으며, 꽃이 피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信)·해(解)·행(行)·증(證)의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자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요즘은 특히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형국인데 모든 인연중생들이 신·해·행·증 을 바르게 믿는다면 어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따르지 않는한 자비만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신·해·행·증의 진리를 다시 실천할 때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행을 실천하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나? 보시입니다. 불교에서의 보시란 주어도 주었다는 마음이 내 주는 것이 진정한 속마라핌의 보시라 했습니다. 마음만 갖지 말고 우리 주변에 내가 보시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기꺼이 다가가십시오. 그렇게 부처님 마음으로 다가감에 자신이 안정되고 산란심이 없어져 마음이 한결 가벼워 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며 맑은 거울 위에 모든 물상이 역력히 나타나지만, 그 거울자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시공덕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속에서 타인에게 가장 편하게

꺼내줄 수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혈액, 바로 피지요. 피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일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보시의 기쁨을 만끽해 봅시다. 오늘 한철 행사도 바로 신·해·행·증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한철해 준 만큼의 피가 없어도 내 몸을 지탱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언젠가 나도 피가 모자라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피를 나눠 준다고 해도 장한 일을 했다 상(相)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살다보면 언젠가 그것이 다시 나타나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 없어야 부처님 마음이요, 되돌아 오겠지 하는 마음만 믿고 했다는 생각을 하면 그 순간 공덕은 사라집니다. 내가 신·해·행·증을 방편으로 삼으며 신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생(放生)입니다. 우리는 흔히 방생하면 물고기나 거북이를 풀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방생은 인위적인 곤경에서의 해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모든 생명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는 마음이 자비이며, 그것이 곧 방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러진 제비 다리를 치료해주는 것이 방생이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치료해주는 것은 방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 이미 존재가치를 가지는 법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 땅위를 기어가는 미물 하나에 이르러까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길을 걸어가면 미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장자로 땅을 울려 '사람이 지나가나 미물 피해 목숨을 보존하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만회하기 위해 어린이를 유괴하고, 그것도 모자라 살아 있는 생명을 가발에 넣어 수장해버린 작금의 작태를 보면 다시 한번 방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듭니다. 백정이 소를 죽일 때도 그 고통을 생각해서 단번에 죽인다는데, 이는 사람이 소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세태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타려면 인간성이 소멸되어 가는 세상을 비판만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고 아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대할 때 마음은 내일을 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로서 세상을 보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중생심으로 보면 업에 따라 차별이 일어나 분별만 커지는 법입니다. 물고기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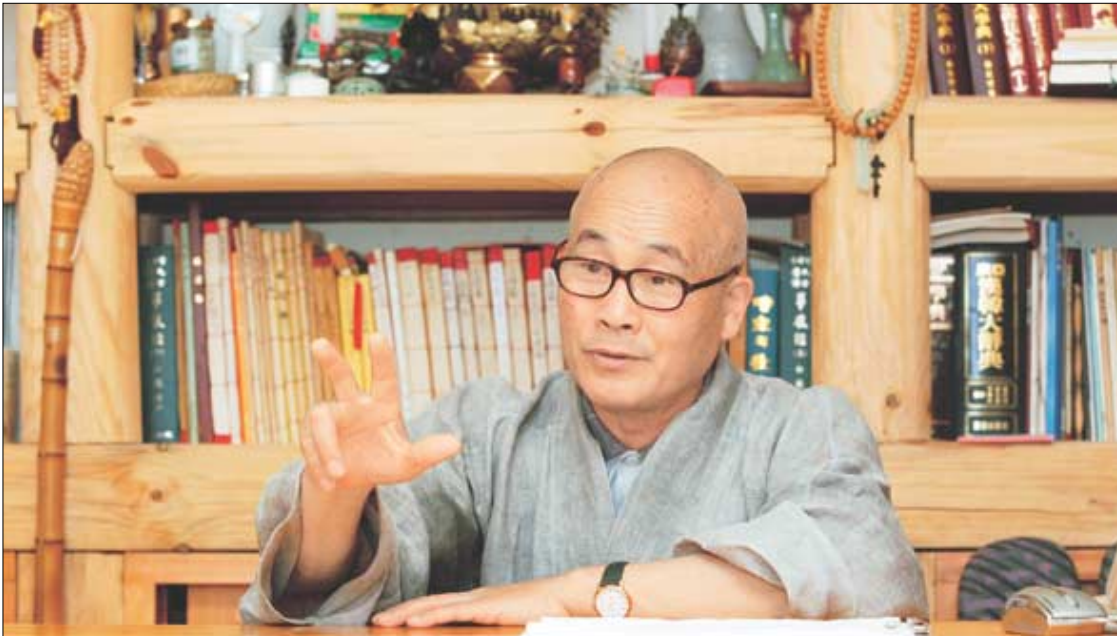
세상사 비판만 말고 먼저 감싸주고 사랑할때 밝은 내일 열립니다

Advertisement for '부처님 등불' (Buddha Lamps) featuring various styl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angoo.com.

Advertisement for Bangoo.com featuring a wooden table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알립니다' (Notice) regarding a seminar or event, including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a diet program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You can also become slim) with details on pricing and benefits.



작은 보시도 큰 공덕이 될 수 있으며, 재물과 돈이 없어도 보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범추 스님.

랑하고 중히 여길 때 방생의 공덕, 보시의 공덕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보시도 큰 공덕이 될 수 있다는 일화를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시 공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테니까 일화를 통해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부처님이 사위국의 제타 숲 '외로운이 듣는 동산' 에 계시실 때였습니다. 그 당시 배를 짜며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수마였지요. 그는 너무 가난해 집에 한 되의 곡식도 저장할 수 없는 날꼴팔이로 겨우 그날 그날을 연명해 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마는 자신의 신세를 되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보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가난과 고통을 겪는다. 그렇다면 현생에도 보시를 하지 않으면 곧 닥쳐올 내세에 가서는 보다 더 한 가난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노력해서 조그마한 물건이나마 보시하여 내세에는 보다 나은 과보를 받아야겠다." 평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수마는 어느날 실 한 타래를 구해 집으로 돌아가다가 거리 한복판에서 밧줄을 든 부처님이 여러 비구들과 함께 걸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때 수마는 들고 있던 실타래를 만지작거리며 '이거라도 부처님께 보시해야겠다'는 생각에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이를 보시했습니다. 부처님

### 주었다는 마음 없이 내주면 심신이 안정되고 마음 가벼워져

게서는 이 실을 받아들더니 마침 잘되었다는 듯이 몇 군데 떨어진 가사를 꿰매었지요. 이때 부처님께서 떨어진 가사를 꿰매시는 것을 본 수마는 너무도 기뻐 부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던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과 돈이 없어서 보시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여섯 가지 보시는 재물이 없어도 됩니다.

첫째는 눈으로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눈빛으로 부모, 스승, 이웃들을 대하는 것을 눈 보시라 합니다. 이렇게 눈 보시를 하는 사람은 죽은 후 내세에 태어나더라도 청정한 눈을 얻게 되고, 또 미래에 부처가 되어 하늘 눈, 부처 눈을 얻게 됩니다. 둘째는 온화한 얼굴과 즐거운 얼굴빛을 보시하

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로 하는 보시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쓰고 험한 말은 쓰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내세에 태어날 때 말을 잘 하는 재주를 타고나며, 그가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됩니다. 넷째는 몸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부모와 스승, 스님들을 보면 항상 일어나서 맞이하며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마음의 보시입니다. 위에 말한 것처럼 아무리 받들고 공양한다 해도 마음이 온화하고 착하지 않으면 보시라 할 수 없지요. 착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정성껏 공양하는 것이 마음 보시입니다. 여섯째는 자리의 보시입니다. 버스타 지하철을 탈때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세에 태어날 때 칠보로 된 귀중한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셨습니다.

이 여섯 가지 보시는 구태여 재물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보시라 하면 무언가 물질로써 베푸는 것만을 알고 있는 불자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일상에서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겐 비록 하찮은 것이지만 남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것일 수 있으니 잘 살펴 나누는 마음을 실천하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정리= 김주일기자 · 사진 고영배기자



###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일관 스님

지난 2003년 1월 20일 해암 스님의 문집관계 일로 문도스님들과 함께 백양사 서용 큰스님을 친견했다. 해암 스님을 해인사로 출가하게 하고, 인곡 스님을 은사로 인연맺게 한 것이 서용 스님의 권고였다. 해암 스님의 속가집이 백양사 아랫마을이어서 스님은 서용 스님을 자주 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암 스님 법어집의 서문은 당신께서 거동하기가 힘이 부쳐서 직접 쓸 수는 없으나 감수는 해주셨노라는 말씀을 뒤로 하고 부상으로 향했다. 법어사 선원장인 인각 스님을 뵈고, 점심공양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포교원의 포교국장 자리가 비었는데, 살아볼 의향이 있는나고 물었다. 나는 이런 자리를 전혀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다. 맘상좌가 깨끗하게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으니 은사스님 마음 또한 환희심으로 가득할 것은 불문가지 아니겠는가.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저를 통한 상좌에게 새로운 도심으로 급성장하는 상계등에서 포교를 하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이끌어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일면 스님은 맘상좌인 일관 스님을 해인사에서 상좌로 받았다. 일면 스님은 하심수행을 위해서 해인사에서 공양주 소임을 보았는데, 그때 일관 스님이 일면 스님과 은사 상좌 관계를 맺게된 것이다.

공부가 환희심으로 가득해서 세상사는 초연하게 지내는 일이 도(道) 뒤는 일에는 최고라는 한 가지 생각으로 살아 왔는데, 갑자기 포교를 하라 하고 하니 난감했다. 하지만 은사스님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도 없다. 부처님 말씀을 대중에게 널리 전하는 포교의 길은 처음 들어섰지만 성실과 인내로 꾸준히 했다. 한창 강남에는 능인선원, 강북에는 사천왕사 라고 해서 서울 도심포교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즈음이었다.



그림 · 문병성

시른듯하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해인사 원담암 감원인 사형스님이 좋은 기회이니 소임 맡아보기를 권해, 이력서를 보냈다.

며칠후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 스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면접을 보면서 일관 스님은 해암 스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 해암 스님을 해인사행 때부터 시봉을 했으며, 강원과 선방을 다니면서도 스님을 모셨다고 했다. 일관 스님은 어른의 입장을 살펴서 편하게 모신다. 해암 스님도 그렇고, 포교원의 원장스님, 또 일관 스님의 은사스님인 일면 스님도 그렇게 모신다.

일관 스님이 해인사 선방과 절불선원 등 제방의 선원에서 마음 뒤는 공부를 치열하게 하고 있을 즈음, 은사인 일면 스님이 상계등의 작은 주먹을 매일, 사찰로 운영해 보라고 했다. 이때까지 선방만 다닌 스님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일관 스님은 절불암의 운상선원에서 공부할 때에는 정발로 신심 충만한 용맹정진으로 '일관' 했다. 이때의 발원은 가히 말로는 토로하기가 어려울 장문의 글을 편지지에 옮겨 도(道)의 무게를 실어 은사에게 보냈다. 일면 스님은 그 글을 보고 대견하고 흐뭇했다. 내 상좌가 이토록 마음뉘기를 일심으로 하니 즐거울 수밖에 없었을 터

### 신도들에 부담지우지 않고 평소 시숫물 아껴 불사

사천왕사와 같은 상계등에 있는 보현사는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포교의 걸음을 성실히 내딛고 있었다. 일관 스님이 주지승 있는 보현사는 날로 번창하여 인근의 경기도에도 포교당을 개원했다. 스님은 시숫물 아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코 헛되이 쓰는 법이 없다. 불사도 시숫물을 모아서 하기에 신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일관 스님은 매사를 투명하게 처리하며, 회계처리가 당당한 삶처럼 늘 분명하다.

내가 조계종 포교국장 소임을 살면서 1년여 동안 포교부장인 일관 스님을 모시고 살았다. 옆에서 지켜보니 일관 스님은 원칙이 분명하고, 변함없는 성실한 자세로 일을 처리한다. 출근도 전 직원을 가운데 제일 빠르다. 항상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긴장을 늦출수가 없다.

나는 또 시골에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살다가 갑작스레 종단의 조직생활에 적응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혼돈기인 내가 조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도 많이 해주셨다.

원칙이 철저하고 당시생활이 투명한 스님 밑에서 1년3개월 동안의 소임을 마치고 최근 다시 산으로 돌아왔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면서 즐겁게 소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해인강원의 선배이기도 한 일관 스님. 겉으로는 냉정한 듯 하지만, 미간에 부처님의 백호를 지니고 있는 상호와 거기서 풍기는 자상한 미소도 뿜어낼 줄 아는 스님이다. 스님을 생각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을 자신감이 생겨난다.

■ 해인사 원담암



**범추 스님은** 1949년 해인사에서 출가한 범추 스님은 52년 직지사 조실 관음 스님에게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해인사, 조계사, 직지사 전문 강원학교를 졸업한 스님은 75년 청주 조령산에 풍주사를 개원했다. 이때부터 범추 스님은 재조사 포교에 전력을 기울였다. 83년 청주 고도소 종교지도위원을 시작으로, 84년 청주 소년원 교화위원, 91년 청주 지방 검찰청 소년 선도위원, 92년 청주 경찰서 보안지도 위원으로 위촉돼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97년과 98년에는 각각 법무부 장관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충북잡역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사후세계> <연화가 피어온 발자취> <내마음 연꽃 피는 법 알았으니> 등이 있다. 범추 스님을 20여년동안 시봉해온 풍주사 원주 덕일 스님은 "범추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신도들에게 단지 법문으로만 회향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을 통해 무언의 가르침을 주신다"고 평했다.

## 육 법 등 (六法燈)



의장등록제 2002-63243호



용암사(서울·관전구) 대웅전에 정엄리(육법등)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울물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정단 영가전등을 위한 49세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포천읍 설리동 290-1 출판 및 대리점 모집

전화 : 031)541-1417 / 팩스 : 031)541-1419

## 세계최고의 염주

# 금강염주

### 소원성취척척

###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성물에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北 韓 産  
**金剛念珠**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최고의 금강약석이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한지 하신대 오묘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사에서 국내 특산물로 반입, 조립 시판하며 화제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 효능을 인정하시며 모든 분께 최고의 선물로 추가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맑은 영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기와 잡귀들이 보기에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벽을 불려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로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장명, 대성취를 이루시며 기쁨을 받으실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 중환으로 무병종언인 분
-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강염주를 성원해 주신 모든 스님 및 불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감사의 뜻으로 금강염주를 별도로 추가 판매합니다.

**1세트 가격**

-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 108염주, 12단주, 손목염주 225.000원

입금규칙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별도가격**

- 108염주 135.000원
- 12단주 85.000원
- 손목염주 38.000원

**문의 및 신청전화 (02)1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송금으로 전액 전액이나 받아 전입금을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합니다.

전국대리점모집 사찰매장 및 불교용품점, 개인사업자